

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
정부 ‘자치분권 종합계획(안)’ 및 ‘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’ 수정
촉구 결의안
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, 운영위원회 위원님!

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

김정태 의원입니다.

본 의원 외 109명이 공동발의한

「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

‘자치분권 종합계획(안)’ 및 ‘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’ 수정
촉구 결의안」을 제안 설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
생각합니다.

□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 구조임에도 불구하고
강시장-약의회의 형태로 운영되면서
지방의회가 견제·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
한계가 있습니다.

-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경로로 건의사항을 전달해왔습니다.
- 문재인 대통령은 ‘강력한 지방분권’, ‘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’ 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, 이 같은 강한 의지를 견인해야 하는 관련부처는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를 미흡하게 다루고 있습니다.
- 「지방자치법」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 현실에서, 중앙정부의 ‘지방분권 종합계획(안)’ 과 ‘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’ 이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을 후퇴시키는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며
- 현재 중앙정부가 준비 중인 ‘자치분권 종합계획(안)’ 과 ‘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’ 을 모두 수정하고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‘지방분권 7대 과제’ 를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.

□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,
운영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
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